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상(修相)한 교육문화 공동체 결'

"문화 접하면 아이들 마음도 쑥쑥 자라죠"

매주 목요일 오후 광주 농성문화의 집에서는 어린이들의 이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려온다. '노래하는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초등학생 20여명은 노래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이 끝나는 내년 2월엔 작은 음악회 무대에도 설 생각을 하면 가슴이 뿌듯해진다.

'노래하는 아이들'은 기존의 어린이 학창단이나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노래교실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운영된다.

'마음 밭에 노래 씨앗을 심다', '족족이 물을 주자', '파릇파릇 싹이 움트다' 등 4단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노래를 배우는 것도 중요 하지만 '예술을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자라나는 과정'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런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들은 이름에서부터 뭔가 재미있는 게 느껴지는 '수상(修相)한 교육문화 공동체 결'(이하 결·대표 민문식)이다. '결'은 물결, 나뭇결처럼 자신만의 결을 온전히 드러내고 형형색색의 결들이 서로 어울려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있다.

지역에서 대안 교육 운동을 하던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결'은 연구 단체로 출발했다. 몇 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연구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지난해 6월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결'이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의 후원으로 내년 2월까지 계속되는 '꿈꾸는 삽 & 펠트'이다.

노래 배우고 책 읽고 요리 만들기 등 직접 체험

대안교육 전문가 참여 '울타리 없는 학교' 지향



'수상(修相)한 교육문화 공동체 결'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지난 7월 열린 '악기와 만나다' 수업 모습.

'음악'이 주가 되기는 하지만 연극적 요소를 가미하는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기획이었던 '악기와 만나다'는 아이들이 6주 동안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다

양한 악기들을 직접 배워보고, 연주회도 관람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전남대 의대 관련학부들과 광주시향 단원들이 강사로 참여해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악기를 배우고, '악기와 만나다' 책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

다.

12월에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타악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결'은 청소년 인문학 교실인 '보물섬'도 진행하고 있다. '보물섬'은 다양한 분야의 책읽기와 토론을 기본으로 문화와 예술, 컴퓨터, 영상 등 다양한 분야를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학교밖 사랑방'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기획됐다.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요리 만들기, 자전거로 광주 둘러보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가고 있다.

'결'은 100여명의 회원들이 꾸려가며 박시훈·김소연·박형주·조희란·한종엽·모상근·김주일씨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운영위원들은 프로그램의 큰 틀을 기획하고, 강사 섭외에 나선다. 강사가 확정되면 함께 모여 토론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기 간다.

'결'은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문화공간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또 다양한 문화장르를 가르치는 것에서 나아가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와 아이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결'의 최종적인 꿈은 지역형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 박형주(35) 교육연구팀장은 "큰 규모의 학교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울타리 없는' 학교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432-1318, www.gyeol.org.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허달재 작 '백매'

한·중 수목 세계 한눈에 조망

14일까지 의재미술관 '도시와 자연' 교류전

수목화는 한국과 중국의 서화예술이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화 장르다.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수목화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전개돼 왔지만 한국의 수목화는 독창성에서 뚜렷한 차별을 보이기도 한다.

수목화를 독자적인 양식으로 계승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서화세계를 조망하는 '도시와 자연' 전이 14일까지 의재미술관에서 열린다. 의재미술관과 중국 심천의 관산월미술관이 공동주최하는 이 전시회에는 한국과 중국작가 43명이 참가, 현대인의 도시적 삶과 감성을 수목이란 매체로 조명한다.

한국 참여작가는 이득선 배상윤 백현호 박도승 윤일권 흥정호 조병연 유근태 박문수 허진 허달용 이구용 윤남웅 이선규 박수경 김천일 김범석 박병준 박종석 하성희 등 22명이며, 중국 작가로는 동 샤오민, 천 훈성, 천 상보, 천 준위, 천 타이이씨 등 21명이다.

의재와 관산월미술관은 의재 허백련 선생과 중국 영남화파의 대가 관산월 선생을 기리기 위한 미술관이라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지난 2002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올해까지 4회째 교류전을 갖고 있다. 문의 062-222-3040.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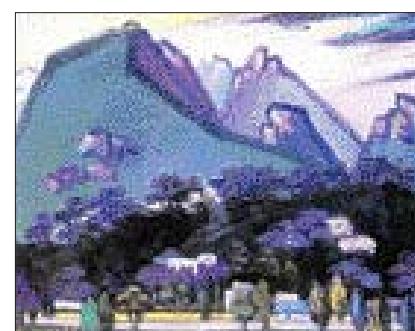
삶의 진솔한 선·강렬한 색채의 자화상

서봉한 12번째 개인전

14일까지 대동갤러리

서양화가 서봉한씨가 8~14일까지 대동갤러리에서 12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서씨는 이번 전시에서 역동적인 필치와 강렬한 색채가 주조를 이루는 개성 넘치는 작업세계를 펼쳐놓는다.



'추월산 마을 정경'

'추월산 마을 정경'·'순창 강천사 계곡' 등 작품은 굵직한 봉터치로 화폭에 독특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가의 관록이 묻어난다. 캔버스를 폭넓게 차지하는 원색들은 자연의 풍성한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 소를 풀어 그려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우수한 소를 그린 '해변의 투우'를 비롯해 '동양 최대의 삼양 대관령 목장' 등 우직하면서도 드팀지 않은 소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목우회 광주지회장, 광주기독교미술인협회장, 광주시전, 전남도전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광주전우회, 광주사생회 이사를 맡고 있다. 062-222-0072.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불우 청소년에 음악 가르치고 싶어요"

정년 맞는 전남대 김선자 교수

8일 광주문예회관서 연주회

피아니스트 김선자(전남대 음악학과) 교수가 내년 2월 정년을 맞는다. 1977년 전남대와 인연을 맺은 후 30년 동안 제자들을 길러낸 김 교수의 정년을 기념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8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이번 음악회를 준비한 이들은 김 교수의 제자들로 꾸려진 '선음회(宣音會)' 회원들이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음악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손가락을 현란하게 움직이고 화려한 연주를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죠. 연주자에게는 자기만의 색채가 가장 중요한데, 그건 오선과 오선 사이의 보이지 않는 무엇을 읽어내는 음악적 지성과 마음의 깊이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김 교수는 특히 지난 1990년 광주피아노아카데미를 결성한 후 지금까지 회장으로 활동하며 애정을 쏟아왔다.

"함께 모여 연구하고 연주하다 보면 서로 배우는 것도 많고, 훈련자는 하기 힘든 일도 단체의 이름으로 진행할 수 있어 뿐만 아니라, 2년에 한번씩 작품 공모를 하는 등 발표 무대가 드문 작곡가들에게 기회를 제공, 작곡가와 연주자가 서로 발전해갈 수 있었죠."

김 교수는 교수로 연주자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준 시어머니와 남편, 두 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목포사법학교를 거쳐 이화여대와 독일 뮌헨 음대에서 수학한 김 교수는 예술대학장, 독일 퀸즐 음대 연구교수 등을 지냈다.



김 교수는 교수로 연주자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준 시어머니와 남편, 두 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목포사법학교를 거쳐 이화여대와 독일 뮌헨 음대에서 수학한 김 교수는 예술대학장, 독일 퀸즐 음대 연구교수 등을 지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경명 재조명' 학술대회

고씨중앙종문화

고, 조성은 아주대 교수는 '시문을 통해 본 고경명의 사상'을, 조원래 순천대 교수는 '고경명의 의병운동과 제1차 금산성 전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하태규 전북대 교수와 이해준 광주대 교수의 논문은 발표되고, 정구복(한국학중앙연구원)의 사회로 오종일(전주대), 김강식(동명대), 이상훈(국립진주박물관), 윤희면(전남대)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문의 02-709-3004.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movies 인기 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안내		PROG. NO.		영화관		Time	
영화보다 더 재밌는 영화관 www.megabox.co.kr		Happy Time		영화안내		PROG. NO.		영화관		Time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메가박스		엔터 시네마		콜롬버스 시네마		씨너스 전대		무등극장		제일 시네마	
구.현대아트극사거리 ☎ 051-544-0600		충장로 5가 (전화예매) 228-2700		상무점 (남부원영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동)		복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충장로 1가 ☎ 232-9106		충장로 3가 ☎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캔디 달리아 (18세)		2관 킹 덤 (18세)		3관 M (15세)		4관 히어로 (12세)		5관 퀸 (12세)		6관 히어로 (12세)	
4관 블랙 달리아 (18세)		5관 킹 덤 (18세)		6관 퀸 (12세)		7관 퀸 (12세)		8관 퀸 (12세)		9관 킹 덤 (18세)	
5관 킹 덤 (18세)		6관 퀸 (12세)		7관 퀸 (12세)		8관 퀸 (12세)		9관 킹 덤 (18세)		10관 퀸 (12세)	
6관 퀸 (12세)		7관 퀸 (12세)		8관 퀸 (12세)		9관 퀸 (12세)		10관 퀸 (12세)		11관 퀸 (12세)	
7관 퀸 (12세)		8관 퀸 (12세)		9관 퀸 (12세)		10관 퀸 (12세)		11관 퀸 (12세)		12관 퀸 (12세)	
8관 퀸 (12세)		9관 퀸 (12세)		10관 퀸 (12세)		11관 퀸 (12세)		12관 퀸 (12세)		13관 퀸 (12세)	
9관 퀸 (12세)		10관 퀸 (12세)		11관 퀸 (12세)		12관 퀸 (12세)		13관 퀸 (12세)		14관 퀸 (12세)	
10관 퀸 (12세)		11관 퀸 (12세)		12관 퀸 (12세)		13관 퀸 (12세)		14관 퀸 (12세)		15관 퀸 (12세)	
11관 퀸 (12세)		12관 퀸 (12세)		13관 퀸 (12세)		14관 퀸 (12세)		15관 퀸 (12세)		16관 퀸 (12세)	
12관 퀸 (12세)		13관 퀸 (12세)		14관 퀸 (12세)		15관 퀸 (12세)		16관 퀸 (12세)		17관 퀸 (12세)	
13관 퀸 (12세)		14관 퀸 (12세)		15관 퀸 (12세)		16관 퀸 (12세)		17관 퀸 (12세)		18관 퀸 (12세)	
14관 퀸 (12세)		15관 퀸 (12세)		16관 퀸 (12세)		17관 퀸 (12세)		18관 퀸 (12세)		19관 퀸 (12세)	
15관 퀸 (12세)		16관 퀸 (12세)		17관 퀸 (12세)		18관 퀸 (12세)		19관 퀸 (12세)		20관 퀸 (12세)	
16관 퀸 (12세)		17관 퀸 (12세)		18관 퀸 (12세)		19관 퀸 (12세)		20관 퀸 (12세)		21관 퀸 (12세)	
17관 퀸 (12세)		18관 퀸 (12세)		19관 퀸 (12세)		20관 퀸 (12세)		21관 퀸 (12세)		22관 퀸 (12세)	
18관 퀸 (12세)		19관 퀸 (12세)		20관 퀸 (12세)		21관 퀸 (12세)		22관 퀸 (12세)		23관 퀸 (12세)	
19관 퀸 (12세)		20관 퀸 (12세)		21관 퀸 (12세)		22관 퀸					